

대한양계협회의 소식

'84년 정기총회 성황리에 개최

- 회장단 전원유임, 임원 34명 선임 -
2월 8일 무역회관 중회의실에서



(이 상운 회장)



(오 봉국 박사)

본회 '84년도 정기총회가 지난 2월 8일(수) 오후 2시 무역회관 중회의실에서 전국의 대의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임덕성사무국장의 개회로 시작된 이날 총회에서 이상윤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해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양계산업발전과 양계인권익보호를 위해 많은 사업을 전개해 큰 성과를 얻었다」고 전제하고 검정소이전, 양계산업 기반조사, 계군혈청검사, 선진지시찰, 계



△ 2월 8일 무역회관에서 개최된 1984년도 본회 정기총회



△ 총회에서는 회장단을 전원 유임시키고 임원 34명을 선임했다(사진은 신임원들)

란G.P센터, 브로일러제열화 사업추진 등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금년도에도 전양제인의 인화단결, 특히 협회 조직 활성화로 양계산업안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뜻을 밝히고 전양제인의 단합을 호소했다.

이어서 오봉국박사(한국가금학회회장, 본회고문)는 내빈치사에서 「83년은 양계경기에 있어 과거 30년 이래 가장 어려웠던 해」라고 전제하고 「축우, 양돈 등 타축산업에 비해 더욱 어려움이 많은 것은 양계산업이 기술에 있어서는 상당한 수준에 있으나 양계산업에 종사하는 업자들이 반복되는 경기변동에 스스로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어리석음에 기인한다」고 역설하고, 이제는 과거와 같이 생산만 하면 소비가 된다는 생각에서 탈피해 내가 생산하는 제품이 상품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며 정부시책에 순응해 스스로 발전해온 양계산업도 이제는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를 받아 선진양계산업으로 발돋움 해야한다고 밝혔다.

속행된 총회에서는 '83년도 국내양계 질병예방에 수고가 많았던 이영옥박사(가축위생연구소계역과), 김길원사장(한국바이오테화학), 박길수사장(덕수가축약품), 장인상사장(녹십자수의약품), 심창원사장(위림상사), 서정범사장(제일화학),

계봉구사장(범한약품상사) 등 7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본회 허 돈이사(부평계우회장), 전북지부 고석수씨(채란분과), 경북지부 권정일씨(채란분과), 경남지부 하영석씨(육계분과), 우원현씨(채란분과), 전남지부 유승원씨(육계분과), 제주지부 부대현씨(고려축산) 등 7명에게 공로패를, 본회 직원에(김진영 총무부원) 표창패가 수여되었으며, 계속해서 이재식감사의 감사보고가 있는 후 부의안건 심의에 들어갔다.

황 인옥 전무의 '83년도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결산보고에 이어 류 종래 전회장을 임시의장으로 선임하여 임원개선을 실시, 만장일치로 회장단을 그대로 유임시켰으며, 이사진은 회장단에서 전형위원을 구성해 선임하였다.

'84년도 사업계획(안) 및 지출예산(안) 심의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양계산물 유통개선 적극추진 △생산조절 및 가격안정 △방역대책 △등록종계장 및 허가부화장 보호 △닭경제능력 검정소 완공 및 검정사업실시 △자료정비 △발간사업 △정책자료연구개발 △조직강화 및 인화단결 △기타 조사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일반회계 3억3천9백88만

8천5백원, 특별회계 2억9백만원 등 총 5억 4천 8백88만 8천 5백원에 대한 예산을 확정하였다.

기타사항에서는 소비촉진홍보시 돼지고기 선전과 별개로 양계산물 소비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양계관련업계에서 프로그램제작에 꼭 참여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닭고기 수매비축에 대한 수매가 산정시 경영비는 보장되도록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밖에도 회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전양계인이 협회를 중심으로 더욱 단결을 굳건히 하자는데 입을 모았다.

총회에 참석한 전국의 대의원들은 총회가 과한 후 별도로 준비된 연회장에서 음식을 나누며 84년은 양계업계의 인화단결과 안정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한해가 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한편 이날 본회 총회를 위해 한국바이오테화학 <주>(대표 김길원), 한국화이자 <주>(대표 김중배), 제일제당 <주>(대표 이종규)에서 각각 기념품을 보내준 바 있다.

총회에서 선임된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 회 장 : 이상윤(신기농장, 부화)
- 부회장 : 신흥중(교창양계, 부화)
- 박준영(한협축산, 부화)
- 고태영(진양농장, 채란)
- 이 사 : 류종래(유성농장, 부화)
- 이규상(유일농원, 부화)
- 차상진(봉명부화장, 부화)
- 남기성(경남부화장, 부화)
- 이계욱(천호부화장, 부화)
- 배성황(창소농장, 부화)
- 강세춘(광일부화장, 부화)
- 김성경(대지농장, 종계)
- 장민기(버들농원, 육계)

- 이태근(소개울농장, 육계)
- 민덕기(덕일농장, 채란)
- 이학복(성일농장, 채란)
- 한명복(교하농장, 채란)
- 한순(홍일농장, 채란)
- 황석규(삼진농장, 채란)
- 김현(발안농장, 채란)
- 장호진(하봉암농장, 채란)
- 최정삼(정화농장, 채란)
- 정채인(감별분과위원장)
- 이건남(충남지부장, 부화)
- 박인수(전북지부장, 부화)
- 김용찬(전남지부장, 부화)
- 박규병(경북지부장, 채란)
- 김중경(경남지부장, 채란)
- 강태호(제주지부장, 부화)
- 이한주(전북지부, 채란)
- 한명수(전남지부, 채란)
- 하영석(경남지부, 육계)
- 감 사 : 이재식(제유부화장, 부화)
- 노광순(운암농장, 채란)

제 2 차 육계분과위원회개최

- 백신접종의 효율적인기법 세미나개최 -

제 2 차 육계분과위원회가 지난 2월 27일 오후 2시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덕수 가축약품상사의 아세영전무의 백신접종의 효율적인 기법에 대한 비디오상영과 해설이 있었다.

그 내용은 각 부위에 따른 백신의 효과 및 장단점, 사독백신과 생독백신의 장단점, 분무백신의 효과에 대해서 발표했다.

계속해서 진행된 분과위원회는 닭고기 수입에 대한 대책, 3, 4월 육계전망, 외국백신 수입문제, 검정소 조경공사에 필요한 식수 등에 대해

황 인옥전무의 협회업무보고가 있었다.

장 민기 육계분과위원장의 진행으로 지역별 정보교환 및 전망검토에서 육계값은 1,250~1,350원선에 이루어지나 1,400원대 형성이 가능할 전망이고 초생추 가격은 230~300원 선으로 사육가들의 신중한 입식으로 조금 하락할 전망이며 육계값은 당분간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생산자들의 일반적인 견해가 4월 중순께나 가야 정상적인 가격이 형성할 것을 전망, 입추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경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계육가격의 연동제 실시, ILT 백신 수입에 대한 건의도 있었다.

양계용 배합사료 품질향상을 위한 요청

- 사료협회로부터 회신 접수 -

본회는 지난 2월 20일 양계용 배합사료 품질향상을 위해 축협중앙회와 사료협회에 각각 건의 및 요청을 한 바 있다.

그 내용은 △관세 및 사료원료가격 인상에서 기인한 국내 배합사료가격인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특히 작년 11월 사료가격 인상 이후 양계인들로부터 품질이 크게 저하되었다는 원성이 높으며 △정부의 사료원료 수입다변화 정책으로 원료구매를 적절히 하지 못할 경우 배합사료 품질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 바 △사료품질에 민감한 양계용 배합사료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여 생산성이 하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바라며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축협(사협)과 본회가 공동으로 정기 세미나 및 좌담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이에 대한 사료협회의 회신이 2월 29일 접수된바 그 내용을 소개한다.

양계용 배합사료 품질향상을 위한 요청에 대한 회신

● 관련호로 요청하신 양계용 배합사료 품질향상에 대하여는 <별첨>과 같이 각 회원사에 통보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 정부시책에 의한 사료곡물 다양화는 배합사료의 가격안정과 사료곡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제도이며 곡류다양화가 바로 사료품질의 저하를 뜻하는 것이 아님은 외국의 양계사로 배합비율을 참고하면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되어 금번 당협회에서 발간한 "기타 곡물의 사료가치 및 이용방안"을 별도 송부하니 이를 참고하시어 각 회원에게 널리 주지시켜 정부시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 귀회가 희망하는 정기적인 세미나와 좌담회 개최는 당협회의 사정이 허락하는 한 적극 협조위계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대한양계협회로부터 83. 11월 사료가격인상 이후에 양계사료의 품질저하로 사료품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양계업자로부터 원성이 높다는 통보가 있는 바

2. 최근의 사료검사 결과와 원료수급상황을 감안 할 때 육계에 있어서의 사료효율의 저하와 산란계에 있어서의 산란율 저하는 사료곡물의 다양화 조치에 의한 일시적인 "스트레스" 현상과 금년 겨울철의 장기간 지속된 강추위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기는 하나

3. 각 회원께서는 양계사료를 공급하는 양계장에 대한 사양관리 지도를 강화하여 사료효율 및 산란율의 저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양계업자와 협의 마련하여 사료품질 저하의 오폭로 인한 불신평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4 제 2 차 이사회 개최 양계산업안정화 위한 결의다져

- 각 분과위원 및 전문위원 선임 -

본회는 '84년도 제 2 차 이사회를 지난 2월



△ '84년 제2차 이사회

29일(수) 오후 2시부터 축산회관 지하회실에서 개최하였다.

2월 8일 84년도 정기총회에서 새로 구성된 후 처음 개최된 이날 이사회는 참석자들의 양계산업안정화의 힘찬 의지를 다짐하는 중요한 회의가 되었다.

임 덕성사무국장의 성원보고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 이 상윤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각 분과별 지역별 지도급 인사로 새롭게 구성해 힘찬 출발을 하게 되었다」고 전제하고 자신의 협회라는 주인의식으로 물심양면으로 도와 안정된 양계산업의 초석이 될것을 다짐했다.

이어 회의는 참석 이사의 소개, 전 회의록 낭독, 업무현황보고, 부의안전심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부의안전으로는 신규회원 6명에 대한 승인과 분과위원 및 전문위원의 선임, 대의원 및 분과전문위원회규정 일부 개정, '84특별회계 세입, 세출 1차 추가경정 예산 등이 원안대로 통과 되었으며 기타 사항으로 검정소조경 현수사업, 아세아태평양 축산학회 총회 협찬, 협회마크제정, 기타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대의원 선출규정 및 분과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은 정관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에 대

한 수정과 대의원등록절차의 감소화로 행정능률의 제고, 임원의 임기와 대의원, 전문위원, 분과위원회 임기를 일치시켜 행정의 일원화 도모, 현행 규정상 부분적 모순점을 시정해 합리적인 운영을 꾀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다.

또,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은 검정소시설 및 양계기반조사비 보조가 예산보다 1천 9백여 만원이 감액되어 이를 승인키 위한 것이다.

전양계인의 단결과 화합으로 조성되는 검정소조경 현수사업은 전임원이 사업에 능동적으로 적극 참여키로 하고 출선하여 10좌(10만원) 이상씩을 헌수키로 결의한 바 있으며 협회마크 재제정 등의 안건은 집행부에 일임키로 했다.

한편 본 이사회에 앞서 2월 회장단회의와, 회원 유대강화와 업무능률향상을 위한 회장단 지부장 연석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선임된 각 분과위원 및 전문위원은 다음과 같다.

○ 부회분과위원 (20명)

박 준 영(한협총계장)	이 규 상(유일농원)
이 재 식(계유부회장)	강 세 춘(광일부회장)
이 계 옥(천호부회장)	유 수 기(부로부회장)
이 형 섭(기림농원)	홍 순 직(미랑부회장)
차 상 진(봉명부회장)	배 선 채(중원농장)
김 홍 영(한홍목장)	이 진 남(대진신기농장)
남 기 성(경남부회장)	신 홍 중(고창양계)
박 인 수(동양부회장)	김 용 찬(순흥부회장)
류 종 래(유성농장)	손 종 현(신진부회장)
주 양 수(형제부회장)	강 태 호(대종부회장)

○ 종계분과위원 (20명)

김 수 동(창동부회장)	김 인 영(양지부회장)
남 기 성(경남부회장)	김 성 경(대지농장)
신 주 영(고골부회장)	윤 건 구(소영농장)
김 백 규(금란부회장)	최 광 락(광암부회장)
김 용 봉(경원농장)	이 진 일(봉림부회장)
최 한 순(한일농원)	정 석 택(명지부회장)
서 경 석(충남부회장)	나 기 현(연암축산)

배 성 황(청소농장) 강 명 중(협동부회장)
 박 규 병(봉춘부회장) 홍 동 표(제일부회장)
 박 종 인(광주부회장) 송 두 진(지산부회장)

○채란분과위원 (20 명)

고 태 영(진양농장) 노 광 순(운암농장)
 주 병 한(한국계우회) 왕 회 오(신일농장)
 오 재 정(천호계우회) 한 응 환(자양농장)
 이 신 규(한국계우회) 허 돈(청천농장)
 정 창 각(수원분회) 박 재 홍(동두천분회)
 이 원 기(동두천분회) 함 증 혁(화도계우회)
 최 영 식(대창농장) 송 상 정(수원분회)
 안 호 공(신도계우회)
 경북지부 채란분과위원장, 경남지부 채란분과위원장
 전북지부 채란분과위원장, 전남지부 채란분과위원장
 충남지부 채란분과위원장

○육계분과위원 (20 명)

장 민 기(버들농원) 이 태 근(소개울농장)
 신 정 일(구량랜드) 백 명 기(혜원농장)
 원 승 재(포천분회) 조 정 래(수원분회)
 임 중 호(용인분회) 정 지 훈(의정부계우회)
 이 상 봉(평택분회) 신 현 무(안양분회)
 정 인 혁(광주분회) 박 병 식(인천분회)
 공 용 구(대전계우회) 정 동 명(온양농장)
 이 중 득(충주분회)
 충남지부 육계분과위원장, 경북지부 육계분과위원장
 경남지부 육계분과위원장, 전북지부 육계분과위원장
 전남지부 육계분과위원장

○감별분과위원 (16 명)

정재인(국제감별학원), 강운식, 이 송, 김수환, 안규태, 민경두, 하경미, 조진각, 장형태, 이한범, 주근환, 김윤환, 정유범, 강정구, 전홍준, 박오희

○검정위원 (8 명)

오 봉 국(서울대 농대교수)
 오 세 정(건대측대 교수)
 김 춘 수(파학기술원 부소장)
 정 선 부(축산시험장 가금과장)
 박 근 식(가축위생연구소 검정화학과장)
 남 궁 선(가축위생연구소 계역과장)

상 병 찬(국립종축원)
 박 태 진(국립종축원 대전지원장)

○편집위원 (13 명)

김 순 재(건대측대 교수)
 김 영 환(마니육종 대표)
 김 정 인(신촌사료 상무)
 송 기 홍(내외동물약품 대표)
 신 정 일(구량랜드 대표)
 신 정 재(과학사료 대표)
 임 병 규(서울사료 상무)
 장 경 국(두산곡산 생산차장)
 지 규 단(고대농대 교수)
 김 영 옥(퓨리나코리아 가금부장)
 정 선 부(축산시험장 가금과장)
 이 영 옥(가축위생연구소 계역연구관)
 송 상 정(채란업 경영)

2 월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백신접종 세미나 및 VTR상영도-

2월 채란분과위원회가 2월 15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에 앞서 가진 「백신접종의 효율적 기법」에 관한 세미나에서 덕수가축의 이 세영전무는 네덜란드에서 제작된 VTR 필름을 상영하면서 양계용 백신의 접종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백신의 접종방법은 제사구조 등 환경에 따라 투여방법이 달라진다고 전제하고 사독백신은 부작용이 없고 면역이 장기간 유지되는 장점이 있으며 생독백신은 대량접종과 개체별 접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는 경구법, 음수법, 부리담그기 방법, 분무법 등 생독백신 투여법에 대하여 설명했다.

본회의에서 고 태영 분과위원장은 「구정 전에 가격이 조정된 바 있으나 날씨(교통) 관계로 1주일만에 무너졌다」고 말하면서 현재 생산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난가를 올해에는 어떻게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 재란분과위원회에서는 백신접종 방법에 대한 VTR 상영이 있었다.

제 1 차 감별분과위원회 개최 - 2월 14일(토) 본회 회의실에서 -



△ '84년도 사업계획 수립이 중점 논의된 제 1 차 감별분과위원회

했다.

본회 황 인옥전무는 협회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신년인사회, 정기총회 및 임원개선, 점정소조경 사업, 정책개발 등에 대해 보고했다.

안전토의에서는 산란계 초생추 출하, ILT 및 뉴깁슬방역에 대해 검토한 후 최근 대형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무공해 계란에 관하여 토론을 벌였다. 모잡지에도 게재된바 있는 소위 '무공해계란'은 경기일원 5, 6곳에서 생산해내고 있는데 아직은 근소량이나 언론에 잘못 보도되어 타계란이 공해계란인 듯한 인상을 줄 수도 있으므로 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혈청검사결과 농장에 따라 역가형성에 큰 차이가 있었는데 방역시범농장은 잡지에 게재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84년도에는 탁상공론에 그치지 말고 생산된 계란을 제값을 받기 위해 근본적인 타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 한 방법으로 상인을 협회에 초청하여 좌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상인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84년도 제 1 차 감별분과위원회가 16명의 분과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월 14일(토) 오후 4시에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토의사항은 84년도 세부사업 계획수립으로 감별사 자격시험은 연 2회에 걸쳐 실시하되 일시장소는 다음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2/4분기, 4/4분기) 경진대회는 4/4분기 제 2 차 감별사자격시험시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회원단합대회 개최건은 다음 위원회에서 구체화하기로 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에 정채인(국제감별학원장), 부위원장에 정진각씨를 각각 선임하고, 위원을 14명으로 분과위원회를 강화하기로 했다.

업계현황과 해외정보 검토에서는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

포천분회 임원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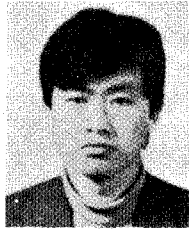
포천분회는 지난 1월 23일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하고 임원을 개선했다.

개선된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 회 장 : 박기복
 - 부회장 : 김정범
 - 이 사 : 김태호 유창안 김민웅 이성묵 조대현
 - 감 사 : 임성진 이두원
- (주소) 포천군 포천읍 신읍리 50-1
(Tel. 2-142)

분회 인사



(강 재명씨)



(강 정수씨)

안양분회 임원개선



(이 병기 분회장)

안양분회는 1월 28일 오후 2시 분회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분회회원 등 58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새 회장에 이병기씨를 선출했으며 다음과 같이 임원진을 개선했다.

- 회 장 : 이병기
- 부회장 : 권인식
- 총 무 : 김경섭
- 이 사 : 김준규 박승민 박성원 안정수 임종균 이근석
- 감 사 : 신현무 김태근

한편 동 분회의 주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주소) 안양시 안양3동 119-62
(전화) (1343) 2-9735

본회는 사무국에 근무하던 운영수씨가 2월말로 사직함에 따라 그동안 경남지역 기반조사요원으로 근무해오던 강재명씨(영남대졸)를 전보 발령하였다.

한편 계군혈청검사 사업을 위해 안양가축위생연구소에 파견 근무하던 조동인씨가 수의장 교임대로 사직, 후임으로 강정수씨(전국대수의과졸, 수의사)를 새로 채용했다.

생산자-계란상인 간담회 개최

- 동진회 주최 본회의의실에서

상호관심사 논해 -

채란업 대군사양가들을 주축으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기술과 지식을 서로 나누어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 도모를 위한 채란양계인 모임인 同進會(회장 고태영)는 지난 3월 20일(월) 오후 5시 대한양계협회 지하회의실에서 생산자-계란상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동진회소속 생산자 13명과 계란상인 20여명이 참석해 상호간의 공동관심사를 토론했다.

이날 모임에서 생산자들은 현재 일반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가고시제(거래시세에 2원정도 올려서 고시하는 제도)가 세무자료상 외형만 높

히는 결과로 문제가 있어 상인측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철폐할 것을 주장하고 계산서(장기)는 당연히 계란을 인도하는 시점의 현시세에 준해 생산자가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상인들은 가고시에 대해 일부 공장납품업자들이 도움을 받고 있으나 시중거래에는 별로 도움이 없다고 밝히고 난가하락시에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솔직히 밝히고, 갑자기 가고시세를 없앤다면 유통에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또 계란 가격하락시 실제 거래시세를 제때에 고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계산서의 생산자 발급문제는 계란 출하시 농장에 책임자가 없을 때가 많아 문제가 있으며 수급에 따라 정확한 시세가 제때에 고시된다면 누가 발급하건 상관이 없다는데 입을 모았다.

이밖에도 2~3중 시세형성, 난좌사용문제, 덤핑출하 등의 문제가 제시되어 많은 의견을 나누고 회의가 끝난 후 저녁식사를 들며 상호간의 협조를 다짐했다.

이번 채란양계인-상인 간담회를 통해 양계업계에 각자만의 이익을 앞세워 「나」만을 생각하던 이기주의의 개념이 「우리」라는 공동의식을 도입 서로가 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고 한 참석자는 전하고 있다.



채란양계는 지난해 3월 계란고시 문제로 생산자와 상인이 서로 의견이 대립되어 회합을 제대로 갖지 못해 년중 2~3중 시세가 형성되는 등 생산자, 상인이 상호 불이익을 겪은 바 있었으나 현재는 합심해 양계업 발전을 위해 서로 힘을 합해 노력하고 있다.

검정소조경헌수 계속답지

- 양계인의 단합된 의지 후세양계인에게 전해 주기위해 -

본회는 국제규모의 닭경제능력검정소가 경기도 안성 신축부지 위에 제사 및 내부공사를 마무리 하게됨에 따라 주변 조경사업을 협회회원을 비롯한 양계인, 유관기관, 단체들로부터 현수를 받아 실시하고 있다.

본회 검정소는 국제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시설을 완비, 양계인들의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제능력검정을 통해 많은 양계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게 되며 전양계인의 화합과 단결로 조성되는 검정소 조경사업은 현재 전국의 양계인, 관련기관, 단체, 업체가 참여해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작게는 1좌(1만원)에서 20좌(20만원)까지 많은 호응이 답지하고 있다.

지난 2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검정소조경 헌수사업은 2월말 현재 관계, 학계 및 연구기관, 유관업체 및 단체, 임원, 회원들에게서 5백여좌(5백여만원)가 답지, 양계인의 단합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도 헌수서를 보내지 못한 양계인 및 유관업체에서는 3월말전에 본회로 연락을 해 양계인의 자랑스런 유산을 후세 양계인에게 전해 주어야 할 것이다.